



열정에 기술을 더해주고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나아가다

생기원 창업보육센터, (주)머신앤비전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창업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0.1%에 불과하다. 제조업의 경우 평균보다 높다고는 하나 70%를 밑도는 68.9% 수준이다. (주)머신앤비전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 중인 설립 4년 차 기업이다. 장래가 밝은 이 기업은 생기원 천안창업보육센터 풀에서 세계 최초 'RGB 조명 최적화 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제조업 특화, 생기원 창업보육센터

창업은 설립부터 사업화 전까지의 '걸음마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창업 기업은 대개 자금을 조달해 연구 개발에 돌입하고 시제품 제작을 거쳐 판매에 이르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를 '걸음마 과정'이라 한다.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이론과 현실은 언제나 다른 법. 실제로 많은 기업이 '걸음마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금 운용의 어려움, 기술 개발의 한계 등에 부딪혀 문을 닫고 만다. 워낙 고비가 많은 터라 업계에서는 이 과정을 '죽음의 계곡'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정부가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창업보육센터도 그 일환이다. 생기원을 비롯한 여러 국가 기관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며 창업자가 죽음의 계곡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창업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생기원 창업보육센터는 제조업 분야에 특화된 창업 기업 인큐베이팅 기관이다. 생기원은 창업자 또는 창업 2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공간을 합리적인 값에 제공하고 경영·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 생존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천안, 부산, 안산, 시화 네 곳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책은 연구 장비 활용과 기술 인력 지원이다. 생기원은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이 기관 내 다채로운 연구 장비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생기원 연구원과 협업해 기술을 자유롭게 사업화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 기술 지원과 관련해 생기원에서 창업 기업에 적합한 연구 부서를 이어주는 등 큐레이팅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창업 지원 및 관리, 자금 알선, 연계 사업 지원 협조 등으로 창